

중동 휴전 소식에 코스피 '6000' 가시권...환율 급락

개인 역대최대 순매도...코스닥도 급등 1089.85

외국인 매수세에 원·달러 환율 30원 넘게 하락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소식이 8일 코스피가 7% 가까이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30원 넘게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09.92p(5.64%) 오른 5804.70으로 출발해 377.56p(6.87%) 오른 5872.3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한때 5919.60까지 치솟아 5900선을 넘어이기도 했다. 장 초반 코스피200 선물지수도 급등하며 유가증권시장에 대

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일시 효력저지(사이드카)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4754억원과 2조6976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인 홀로 5조4031억원 순매도해 코스피 시장 내 역대 최대 순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2월 12일 기록한 사상 최대 개인 순매도 기록인 4조4547억원을 뛰어넘은 것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개인 순매도 규모 또한 이날 6조원에 가까운 5조9852억원으로 새 기록을 썼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환율도 반응했다. 오후 3시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33.6원 내린 1470.6원을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 증시 마감 이후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32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약한 시간만 앞두고 파키스탄 측의 휴전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이란 측도 휴전안 동의와 함께 5

는 10일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또 다른 상대국인 이스라엘도 휴전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상당수가 상승했다.

이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로 1조2550억원 매수 우위를 보여 12.77% 된 103만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5050억원 순매수하며 두 번째로 많이 담으며 삼성전자가 7.12% 오른 21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두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액은 1982조3053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40.98%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18일 이후 3주 만에 역대 최대 비중 기록을 갈아치웠다.

현대차(7.40%), SK스퀘어(15.83%), 삼성바이오로직스(0.76%), 두산에너빌리티(6.64%) 등도 올랐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7.84p(4.61%) 오른 1084.57로 개장해 53.12p(5.12%) 오른 1089.85로 마감했다.

장 초반 코스닥150선물가격이 급등하며 코스닥 시장에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23억원과 3685억원 순매수했다. 개인은 5820억원 순매도했다.

원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 GCC사관학교 3기 출범.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 교육 플랫폼 'GCC사관학교' 3기 교육생 108명이 8일 해남군 해남126아시아호텔에서 입학식을 갖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입학식은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콘텐츠 기업 관계자, 교육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3기 과정은 모집 정원 100명에 307명이 지원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은 오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진행된다.

광주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위'

작년 적극투자형 16.84% 등 수익률...전문컨설팅 성과 증립투자형 포트폴리오 2호 17.47% 전체 사업자 최고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지난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의 연간 수익률 전체 부문(적극투자형·증립투자형·안정투자형·안정형)에서 은행권 전체 1위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2025년 디폴트옵션 상품 연간 수익률은 적극투자형 16.84%, 증립투자형 13.34%, 안정투자형 10.66%, 안정형 2.33%를 기록했다. 이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체 11개 은행권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광주은행의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퇴직연금 운용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성과다.

특히 '광주은행 디폴트옵션 증립투자형 포트폴리오 2호'와 '광주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2호'는 각각 1년 수익률 17.47%, 6개월 수익률 9.32%를 기록하며, 전체 41개 퇴직연금 사업자 디폴트옵션 상품 가운데 1위에 오르는 등 광주은행의 우수한 성과를 견인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이는 가입자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체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약 53조 원, 지정 가입자 수는 734만명으로 집계됐다.

정일선 기자 aura@gwangnam.co.kr



계됐다. 전년 대비 적립금은 33%, 지정 가입자 수는 16% 증가해 디폴트옵션 제도도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은 이와 함께 지난 2월 퇴직연금 고객의 수익률 제고와 연금 운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 조직 'The 헤안(慧眼) 컨설팅팀'을 출범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 상품 포트폴리오, 연금설계, 연금채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특화 조직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연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성숙 광주은행 연금사업부장은 "퇴직연금은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고객별 특성과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 제공과 체계적인 수익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컨설팅과 적극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통해 고객의 퇴직연금 자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한달새 24% 급감...중동전쟁 직격탄

광주·전남 38조4209억 한전 10조8171억 감소 광동신주 매수세 유입 우리로 476.7% 폭증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던 광주·전남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중동전쟁 여파로 한 달 만에 20% 넘게 급감했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의 '3월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전남 상장법인 39개사(유가증권시장 16개·코스닥 시장 23개)의 시가총액은 38조4209억원으로 전월보다 11조9126억원(23.7%)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35조5518억원으로 전월 대비 25.3%(12조3577억원) 줄어든 반면, 코스닥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2조8691억원으로 4.5%(1230억원) 증가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초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 시가총액 감소는 한국전력 주가 하락의 영향이 컸다. 지난 2월 말 37조5548억원이었던 한국전력 시가총액은 지난달 말 26조7378억원으로 28.8%(10조8171억원) 급감하며 지역 전체 시가총액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광통신 관련주는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로의 시가총액은 3659억원으로 전월보다 3025억원 증가하며 476.7%의 높

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우리로는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GTC 2026'에서 광반도체를 미래 핵심 기술로 언급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광통신 관련 종목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닥 시가총액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우리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로부터 차세대 초고속 광통신 핵심 부품인 200Gbps급 광검출기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성장 기대감이 커졌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천 기술이 국내 기업으로 이전된 사례로, 사업화와 양산 가능성이 확보했다는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DSR제강과 다스코

등 2곳이 703억원, 709억원으로 각각 84

억원(13.6%), 42억원(6.3%)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리로와 함께 오이솔루션(4049억원, 1689억원↑), 에이전트AI(360억원, 128억원↑)가 시가총액 증가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중 광주·전남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0.8%로 전월보다 0.1%p 감소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의 거래는 오히려 활발해졌다. 거래대금은 8조1202억원으로 무려 11.3%(8256억원)가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은 5조7725억원으로 전월보다 11.7% 증가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2조3477억원으로 10.4%가 늘었다.

원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역량을 위한 MOU



8일 광주 하이누리 그룹 본사에서 김중구 하이누리 그룹 회장(왼쪽)과 김중구 한국자산매입 대표가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하이누리 그룹

하이누리·한국자산매입, 부동산업 발전 협약

호남 수분양자 주거 안정 등 신뢰 제고에 역량 집중

하이누리 그룹과 AI 부동산 핀테크 기업 한국자산매입은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하이누리 그룹은 광주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전국 부동산 개발·분양 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협력 및 마케팅을 전격적으로 추진한다.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네트워크를 결합한 협력사업을 본격 확대하며, 특히 호남지역 시행·분양 사업에서 수분양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신뢰를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국자산매입은 자체 개발한 AI 부동산 분석 엔진 'AI PRISM' 기반의 보호약정 플랫폼 '햇지했지'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 가치평가모델(AVM)·리스크 기반 프라이싱 모델(RBPM) 등 부동산 자산 가치 산정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 중이다.

김동기 하이누리 그룹 회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수분양자가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햇지했지의 AI 특화 기술을 접목해 호남 지역 수분양자의 주거 안정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중구 한국자산매입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는 데이터와 기술로 증명해야 한다"며 "AI 기반 리스크 분석을 통해 지방 실수요자들이 가격 변동 걱정 없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이누리 그룹은 개발·시행·분양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현재 전북 순창 대상 웰라움 시행·분양과 대구 도남 지구 카이로스도남 명품 타운하우스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전국 단위 사업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김동기 회장은 하이랜드㈜·㈜하이누리 대표이사로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초대 호남지회장, 한국부동산분양마케팅협회 회장, 한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 학과 특임교수를 겸임했다.

원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aT, 태국산 신선란 첫 수입

중소형 마트 중심 224만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최근 주요 수입국인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는 가운데 품질 기준 수급에 대비해 정부 최초로 태국산 신선란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태국산 계란 수입은 지금까지 미국에 주로 의존하고 있던 수입 구조를 완화하고 향후 AI·국제전염 등 돌발 상황에도 안정적인 계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 조치이다.

aT는 4월 본격 수입에 앞서 샘플 물량을 시범 수입해 태국산 계란의 안전성과 품질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검역본부와 식약처의 엄격한 검역·위생 기준을 모두 충족해 국내에 도입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태국산 계란은 가정에

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국내 특란 사이즈에 해당되며, 태국 DLD(축산개발부)가 검증한 태국산 갈색란 A등급 NO.2 L사이즈(60g 이상) 계란이다.

aT는 10월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총 9월까지 걸쳐 224만개의 계란을 전량 항공으로 분할 수입한다. 태국에서 수송된 계란은 국내 도착 후 엄격한 수입 검역과 식품 검사를 거친 뒤, 소독·선별·난각 표시 등 절차를 완료한다. aT는 보관·운송 등 전 과정에서 냉장 온도 기준을 적용하고 단계별 위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국산 계란은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식자재업체를 중심으로 공급했던 미국산과는 달리 중소형 마트 판매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시중 국산 계란가격의 약 70% 수준으로 전국 단위의 집안 마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